

제4차 중국세계불교포럼 축하말씀

만물이 결실을 맺는 호시절에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고도인 이곳 강소성 무석 영산에서 네 번째 세계불교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9년 두 번째 세계불교포럼, 2010년 제13차 중한일불교우호교류대회 이후 벌써 세 번째 인연이니 가히 무석은 한국불교대표단에게는 각별한 장소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금번 제4차 세계불교포럼의 주제는 ‘함께 원력으로 동참하며, 서로 교류하여 거울삼자(同願同行, 交流互鑒)’입니다. ‘교류’란 ‘문화나 사상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이어 한 곳으로 흐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각국의 불제자들이 금일 이곳에 한데 모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 국가의 불제자들은 모두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불교의 의식이나 복색, 불법의 흥포 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각 국에 불법이 전해진 경로와 역사, 당대의 사회상에 따라 차이를 두고 각국만의 불교가 토착화되고 계승되어 발전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마치 근원이 다른 지류(支流)가 본류(本流)에 합쳐지듯, 각 국의 수행 전통과 역사의 차이를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류(原流)로 거듭날 것임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승(殊勝)한 뜻이 담겨있으며 세계 불교도의 한결같은 염원이듯이, 본대회가 국경과 인종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

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현시대와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반석(磐石)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진력을 다하신 중국불교협회 회장 학성스님과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왕작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2015)년 10월 24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